

# 5년간 못잡은 성폭력범 605명 광주·전남 추가 범죄 겁난다

## 미제 11%...해마다 증가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성범죄 용의자 가운데 경찰이 검거하지 못한 숫자가 6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를 저지른 10명 중 1명 이상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거리를 활보해 추가 범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5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 8월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강간, 강제추행 사건 범인은 모두 5449명으로, 이 가운데 4849명이 검거됐다. 그러나 11%인 605명은 아직까지 그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의 경우 전체 2926건 가운데 319건이, 전남은 전체 2523건 중 286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지난 2008년 107건이던 미제 사건은 2010년 15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192건으로 급증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광주시 동구 한 여행사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와 함께 20대 여성을 성폭행 한 뒤 카메라로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까지 한 여행사 직원 오모(43)씨가 아직까지 경찰에 붙잡히지 않는 등 올해도 지난 8월까지 모두 82건의 성폭력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다.

더욱이 성범죄자들은 연쇄 범죄 성향이 강해 제2, 3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피해자를 또한 같은 범죄자에게 2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지난 4월 서울에서는 동거녀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된 중국인 이모(44)씨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동거녀를 찾아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담반을 편성해 미제 사건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초기에 검거하지 못할 경우 장기화되거나 미제사건으로 남기 쉽다.

### ■ 광주·전남 성폭력 발생 및 검거 현황

연도	발생	검거	미검
2008	1043	936	107
2009	1041	969	72
2010	1189	1037	152
2011	1220	1028	192
2012.8	956	874	82
계	5449	4844	605

(자료: 광주·전남지방경찰청)

광주여성성폭력 상담소 실장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는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등 후유증이 심각한데다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며 "성범죄자가 잡히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원스튜디오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6년 205건에 불과하던 성폭력 신고 건수는 2007년 742건, 2008년 953건, 2009년 1191건, 2010년 1473건, 지난해 2117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도 지난 8월까지 모두 181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대는 성인이 55.5%를 차지했고, 청소년(13~18세) 32%였으며 아동(13세 미만)도 12.5%나 됐다. /김영민기자 kki@kwangju.co.kr



성폭력 예방 이렇게 하세요

최근 어린이를 대상으로 발생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북구 보건소 직원들이 5일 중흥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대처법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박광태 전 광주시장 오늘 소환

檢, '의문의 상품권 26억 구매' 횡령혐의 적용 방침

'의문의 상품권 26억원 구매'와 관련 검찰이 박광태 전 광주시장을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광주시는 박 전 시장의 책임이질인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각 실·국·과의 업무추진비로 26억8200만 원 상당의 광주 모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해 논란이 일었다.

광주지검 특수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최근까지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광주시 총무과 직원이었다던 이모(47)씨와 비서실 직원 등을 불러 조사했

으며, 박 전 시장을 조사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이 상품권 구매 후 현금화해 그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시장 비서실, 총무과, 당시 상품권 관련 의전업무 담당했던 6급 공무원이 근무하는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광주 모 백화점을 위탁 운영하는 S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5억82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외 상거래 대금을 받지 못했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광주시는 광주시 자치행정과, 비서실 등 모두 24개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지난 2004년 말 450만원, 2005년 4070만원, 2006년 2억3840만원, 2007년 5억1630만원, 2008년 7억730만원, 2009년 3억2320만원, 2010년 7720만원 등 모두 664차례에 걸쳐 21억여 원을 결제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 아내 트렁크 태웠다 납치 오인 소동

### 알고보니 택시기사 부부싸움 해프닝

택시 기사가 부부싸움 중 아내를 차 트렁크에 태웠다 납치로 오인돼 큰 소동을 빚었다.

5일 오전 9시 30분께 여수시 화장동 모 아파트 주변 도로에서 한 여성이 캡 색깔이 황색인 택시 트렁크에 실려 납치됐다는 신고가 112상황실에 접수됐다.

경찰은 곧바로 비상을 발령, 사건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경찰을 배치하고 외곽도로를 통제하면서 대대적인 검문검색에 들어갔다. 지원을 요청받은 전남지방경찰청은 헬기까지 띄워 수색을 도왔다.

그러나 신고 1시간 30분여 만인 이날 오전 11시께 납치 용의자

량 기사인 김모(49)씨를 여수시 내 모 택시회사 사무실에서 붙잡고 보니 부부싸움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이었다.

김씨는 부인이 이날 집에 없어 찾았으나 사건 현장에서 만나 외출 이유 등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택시 트렁크에 태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강제로 트렁크에 태웠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김씨의 입건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 등 '여성납치'에 초보상이 걸린 경찰은 사건이 부부싸움 끝에 빚어진 해프닝으로 결론이 나자 천만다행이라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 딸 친구 수개월 성추행

### 중학교 운영위원장 구속

전북지방경찰청 아동·여성보호 1319팀은 5일 수개월 동안 딸의 친구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순창의 한 중학교 운영위원장 이모(52)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의 친구 A양(13)을 성추행하는 등 9개월 동안 A양 등 5명을 13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범행은 피해 학생들이 교사들과 상담시간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주위에 알려졌다.

해당 학교 교감은 "성범죄자는 교육기관에서 근무를 할 수 없는 현행법에 따라 해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 고종석, 성범죄 전담 女검사가 담당

광주지검, 피해자 가족 임시 주거지 제공... A양 돕기 모금운동 확산

검찰이 7세 여아를 납치 성폭행한 고종석(23)에 대해 5일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착수됐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전강진)는 이날 오전 경찰로부터 이번 사건을 송치받아 오후부터 고씨를 대상으로 영상녹화 조사가 들어갔다. 검찰은 진술 번복을 예방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영상녹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내용을 토대로

고씨의 자백 내용에 대한 검증과 여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고종석 사건'을 맡은 최영아 검사(여)는 지난 2005년 충주지청 근무 당시 장애인 어머니와 10대 딸을 상습 성폭행한 40대 이웃 남성을 구속기소하고 범죄예방협의회와 협조해 피해자 가족의 새 주거지를 마련해주는 등 각종 성폭력 사건을 전담한 바 있다.

최 검사는 고종석의 범행 동기와 재범 가능성, 성도착증 등에 대한 정

밀 조사를 위해 범죄심리분석가와 의료인까지 투입할 방침이다. 검찰은 고종석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위반, 간음 목적 약취,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 절도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성폭력범죄 특례법은 성폭행 뒤 살인하려는 고종석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살인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서

감경 사유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의자에 대해 의문이 있는 부분을 살피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최초로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최종 판결까지 머무를 수 있는 임시 주거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3일 피해자 부모에게 긴급생계비 3000만 원을 지급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모금 운동을 추진하는 등 민간 차원의 지원도 잇따를 전망이다. /윤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 명의신탁 재산 과징금 폭탄·세무조사까지

### 계모 이름으로 등기했다

### 승소 이후 30% 과징금

건물주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명의신탁'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

광주지법 민사 6부(이종광 부장판사)는 5일 A씨가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 명의로 이뤄진 소유권 이전등기는 두 사람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이뤄진 등기여서 무효"라며 해당 부동산은 A씨 소유라고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11

월께 광주시 북구와 광산구의 건물 2채에 관해 B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지만, 두 사람 사이의 소유권 분쟁이 생기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승소한 A씨는 건물 가격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과징금에, 국세청으로부터 탈세 조사까지 받게 됐다.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면서 명의신탁자인 원고 A씨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탈세 규모가 큰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 /윤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윤변보는 모습 몰카 촬영 10대 달미



○휴대전화로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모습을 몰래 촬영한 10대가 성폭력(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서행.

○5일 광주동부경찰청에 따르면 중학생 김모(15)군은 지난 31일 광주시 동구의 한 빌딩 2층 화장실에서 회사원 A(여·29)씨가 화장실 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옆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집어 넣어 몰래 동영상 촬영했다는 것.

○경찰은 사건 현장의 CCTV를 분석 검관이 다니는 학원 앞에서 검거하고 범행 사실을 자백 받았다고.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무조건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전적이거나 덤핑전적은 넣지 않습니다.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즉석 프리미엄 뷔페

##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 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중합버스터미널 2층

# 24시간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